



▲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제시한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조감도

삼성물산 컨소시엄,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선정

삼성물산 컨소시엄이 28조원 규모의 용산역세권 국제업무개발지구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.

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철도정비창 부지와 서부이촌동 일대 56만6천800㎡에 들어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개발컨셉을 세계도시의 꿈이 만나는 곳이란 의미인 드림 허브(Dream hub)로 정하고 업무·상업

시설을 다양하게 갖춰 '금융-IT-관광'의 3대 축을 활성화하는 세계적 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.

컨소시엄에 따르면 생명의 근원인 물과 최첨단을 상징하는 빛을 모티브로 설계된 용산국제업무지구 중심에는 620m의 랜드마크 빌딩이 들어선다.

가칭 '드림타워'인 이 빌딩은 물방울을 형상화해 유선형의 첨탑모양으로 건설될 예정이다. ☺